

## 현대패션에 응용된 근세(16C~18C)의복장식에 관한 연구

김은실\* · 유미리\*\* · 배수정

광주디자인센터 선임연구원,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A Study on the Detail&Trimming from 16C to 18C in Contemporary Fashion

Kim, Eun-Sil\* · You, Mi-Lee\*\* · Bae, Soo-Jeong

Gwangju Design Center, 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tail&Trimming from 16C to 18C, so called 'the age of decoration' and how they had been applied to contemporary fashion through various collections. Then this study investigated decorative trends based on the frequency analysis.

For the methods of study, using literature review, theoretical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kinds of modern clothing accessories and analyze how they were applied to contemporary fashion and its trends.

The period of empirical research was from 2000 to 2006 S/S with its focus on 「Mode et Mode」, a representative fashion magazine.

As a result, for detail, decorative composition, surface decoration, and trimming, detail-applied decorative designs showed the highest percent. To get a closer look, the highest applied decorative technique was found rough collar in the detail; fringing in the decorative composition; slash in the surface decoration; and jewelry in the trimming.

**Key Words** : 의복장식(Detail&Trimming), 디테일(detail), 장식적 구성(decorative composition), 표면장식(surface decoration), 트리밍을 응용한 장식 (trimming-applied decorative designs)

## 1. 서론

최근 풍성한 레이스와 프릴로 장식된 디자인을 비롯해 튜입모양의 포켓, 레이스로 된 벨트, 자수·보석 장식 등으로 패션에서 그 화려함이 더해지고 있다.<sup>1)</sup>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는 인간의 소박한 바람은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장식물을 고안해 냈으며, 시대마다 유행했던 의복에는 당시의 미의식과 의복구성기술을 반영한 독특한 장식이 보여지고 있다.

현대패션에서 장식에 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 과거 복식에서 비롯된 많은 요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활용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정현<sup>2)</sup>은 이러한 활용방법을 형태차용, 장식의 부분요소 사용, 실루엣 사용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고, 그 중에서도 과장되고 과시적인 스타일을 추구한 근세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장식기법들은 슬래쉬를 비롯하여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의 영감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은영<sup>3)</sup>에 의하면, 복식에 나타난 장식 분류기준을, 디테일, 장식적 구성, 표면의 장식, 트리밍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이순홍<sup>4)</sup>은 의복의 장식을 구조적 장식과 응용장식<sup>5)</sup>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복 장식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디테일에 관한 연구였으며, 근세시대 복식에 관해서는 시대별, 양식별로 유형분석 등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근세시대 의복장식이 현대 패션에 어떻게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최근 다양한 장식기법이 응용되어 장식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시대적 트렌드로 볼 때, 과거시대 장식이 가장 화려했던 근세시대를 중심으로 그 시대 장식이 현대에 어떻게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디자인 트렌드를 전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장식의 시대라 할 수 있는 과거 근세시대의 장식을 중심으로, 이러한 장식이

현대패션에 어떻게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각종 컬렉션을 통해 그 빈도율을 살펴봄으로써 장식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이론적 연구에 있어서 문헌자료 등을 중심으로 근세시대 의복장식의 종류를 고찰하고, 현대패션에 어떠한 형태로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 및 그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로 시기는 2000-2006 S/S까지 패션 대표전문지인 「Mode et Mode」 컬렉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이은영의 장식분류법을 기준으로, 근세시대의 의복장식을 디테일, 장식적 구성, 표면장식, 트리밍으로 분류해보고,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장식의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장식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디자인의 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장식의 정의

「디자인론」의 저술자인 허버트 리이드는 일반적으로 장식이란 말은 어떤 물건과 그것이 붙여지는 바탕과의 관계를 말하며, 인간은 공백공포라고 하는 감정이 존재하고 있어서 빈 공백을 메우고 싶어한다고 언급했다.<sup>6)</sup>

장식은 신체위에 입혀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체상의 장식형태는 채색, 문신, 상흔, 변형과 같이 다양하다.<sup>7)</sup>

원시시대에는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하고 신체 일부분을 변형하는 것을 장식으로 중요시 여겼으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장식의 형태는 의복으로 대체되었고 의복 장식에 대한 관심으로 대체되었다. 장식은 단순히 실용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귀족계급의 부와 권력의 과시를 위해 이용되었으며 귀중한 재료를 사용해 화려한 미의 과장적인 장식과 형태로 진보하였다.<sup>8)</sup>

일반적으로 복식에서 장식은 장신구로 장식하는 방법과 의복으로 장식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장신구는 ‘부대’ 또는 ‘종속하는 것’

이라는 뜻으로 복식에서는 의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보조품으로서 모자, 가방, 장갑, 구두, 팔찌, 목걸이 등의 부속품을 의미하며<sup>9)</sup>, 의복장식은 의복의 구성상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디자인의 미적 표현을 돕기 위하여 디테일선을 특이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장식품을 덧붙여 의복의 장식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의복 장식의 목표는 디자인상 특징이 없는 디자인에 강조점을 주고 개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때 장식의 방법, 위치 등은 의복의 구조적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sup>10)</sup>

## 2. 장식의 분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은영은 장식분류를 디테일, 장식적 구성, 표면의 장식, 트리밍 등으로 나누었는데 본고에서는 이 분류법을 따르고자 한다.

의복 장식의 종류로 장식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테일선을 특이하게 변화시키거나, 독특한 형태로 디자인,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디테일을 구성한 경우는 장식적 디자인에 속한다.

의복 장식은 첫 번째로, 의복구성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말하는 디테일로 크게 칼라, 소매, 포켓, 커프스, 요크, 트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장식적 디테일과, 개더나 플리츠로 주름잡은 폭이 좁은 단으로 네크라인, 소매 끝, 스커트 밑단 등에 덧붙이는 프릴(frill), 프릴과 유사하지만 주름을 잡지 않고 둥글게 곡선으로 재단하여 길이가 짧은 쪽을 의복에 붙여 물결과 같은 리플(ripple)이 생기게 하는 플라운스, 두 부분을 함께 여밀 때 리본모양으로 묶어 장식하는 보우(bow)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11)</sup>

두 번째로, 의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솔기나 끝단 같은 구성선에 장식성을 높이는 장식적 구성으로써, 솔기를 구성할 때 다른 옷감으로 만든 바이어스 테이프를 넣고 박아 솔기선이 강조되도록 구성하는 방법인 파이핑, 구성선을 따라 한줄 또는 여러 줄의 상침을 하는 장식 상침, 옷감의 울을 풀어 매듭을 지어 장식하는 프린징(fringing), 바이어스 옷감을 구성선이나 디테일 끝단을 따라 둘러박는 바인딩(binding) 등이 있다.<sup>12)</sup>

세 번째로, 평이한 옷감의 표면에 장식적 변화를 줌으로써 장식적 효과는 내는 표면장식이 있는데,

옷감에 가는 주름을 겹으로 가늘게 박아 선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핀턱(pin tuck), 의복의 일부에 잔주름을 잡아 장식하는 셔링(shirring), 갈감과 안감 사이에 얇은 소재를 넣고 무늬를 만들어가며 누비는 퀴팅(quilting), 다양한 기법의 수(embroidery)가 있다.<sup>13)</sup>

네 번째로, 의복장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속장식품인 트리밍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색채, 재질의 실이나 옷감을 꼬아서 만든 브레이드(braid), 금속조각의 반짝이는 장식품인 스팅글(spangle)과 작은 구슬인 비드(beads), 모피(fur), 단추, 벨트, 지퍼 등 트리밍은 소재,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매우 다양하다.<sup>14)</sup>

## 3. 근세장식의 종류

첫째, 근세 시대 의복의 디테일 장식으로는, 타원형과 네모형이 낮은 목둘레에 데콜타주(decolltage)되어 목과 가슴 윗부분을 가렸던 파틀렛(Partlet)<sup>15)</sup>, 17세기 중반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장식용 스카프로서 앞 중심에서 리본이나 매듭으로 묶어 착용한 크라바트(Cravat)<sup>16)</sup>, 16세기에 나타나 17세기 까지 원형, 하트형, 나비형, 부채살형 등 다양한 형태로 유행한 러프칼라(Ruff Collar)<sup>17)</sup>, 17세기부터는 러프 외에 어깨를 덮는 폴링밴드칼라(Falling band collar)가 공존하였다<sup>18)</sup>. 근세 시대의 소매는 어깨에 윙이 달린 것이나 장식 목적인 행잉슬리브(Hanging Sleeve)<sup>19)</sup>와 팔꿈치와 손목에 여러 층의 레이스를 다는 앙가장(engageants)이 보여지고<sup>20)</sup>, 소매통이 넓어지면서 위로 접어 올린 턴 백 커프스<sup>21)</sup>(Turned back cuffs)가 유행하였다. 하의 장식으로, 흰 레이스로 된 남성복바지의 무릎 장식인 램프의 갓처럼 생긴 캐논(Canons) 장식, 리본·루프 다발을 의미하는 갈랑(galant)<sup>22)</sup>장식 등 다양한 형태로 리본 루프장식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근세 시대 의복의 장식적 구성으로는 솔기나 끝단을 장식하는 프린징(Fringe), 술장식(Tassel)<sup>23)</sup> 등이 있다. 특히 18세기 여성 가운에서는 스커트의 앞자락에 장식술이 달려있는데 이러한 장식술은 작은 금속링에 보풀거리는 실크를 매듭과 함께 장식 하여 만들었다.<sup>24)</sup>

셋째, 근세 시대 의복의 표면장식으로는, 슬래쉬(Slash)가 있다. 옷감을 일부러 갈라서 만들어진 절개구 사이로 안감이나 대조적인 다른 색 옷감이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는데, 슬래쉬의 형태는 수직형, 사선형, 나뭇잎형, 꽃잎형, 원형, 십자형, 초생달형 등 여러 유형이 보이고 있고, 표현 방법에 있어서 속의 옷감을 슬래쉬 된 사이로 솟아 나오게 하거나, 속과 겉감을 밀착시키면서 속에 입은 옷의 패드를 넣어 팽창 시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sup>25)</sup> 자수는 대표적으로 드로운 워크(drawn work), 컷 워크(cut work), 블랙 워크(black work: 검은 비단실로 금색, 빨강, 검정, 흰색 린넨이나 실크에 섬세하게 수놓는 것을 말함)와 같은 다양한 자수법<sup>26)</sup>과 금, 은 색실에 다채로운 색상이 가미되었

다. 더블릿은 마름모꼴의 작은 무늬를 바탕으로 꽃과 잎새 모양의 패턴과 조개 모양의 퀼팅 패턴이 겹사로 런닝 스티치되어 나타난다<sup>27)</sup>.

넷째, 근세 시대 의복의 트리밍으로는, 남자복식의 앞여밈과 커프스 부분, 여자복식의 드레스, 케이프, 망토 장식을 한 브레이드(Braid)가 있다<sup>28)</sup>. 퍼(fur)는 외투의 안쪽에 안감을 대고 모피 트리밍을 붙이는 것이 특징이었는데<sup>29)</sup> 이것은 보온의 효과까지 높였으며 가장자리에 토끼, 담비, 비버 등의 부드러운 털이 장식적으로 트리밍 되기도 하였다. 더블릿이나 코트에 촘촘한 단추 장식이 유행하였고, 단추나 장신구, 의복 등에 다이아몬드 같은 다양한 보석, 금, 은, 금실과 스팅글 장식이 되었다<sup>30)</sup>.

근세 의복장식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근세 시대 의복장식의 종류

장식의 분류	종류	형태	장식의 분류	종류	형태
디테일	파들렛(Partlet)		장식적 구성	프린징(Fringe)	
	크라바트(Cravat)			술장식(Tassel)	
	러프칼라(Ruff Collar)		표면 장식	슬래쉬(Slash)	
	폴링밴드칼라(Falling band collar)			자수(embroidery)	
	윙 슬리브(Wing Sleeve)			퀼팅(quilting)	

<표 1> 계속

장식의 분류	종류	형태	장식의 분류	종류	형태
디테일	리본 · 보우장식 (Ribbon· Bow)		트림	브레이드 (braid)	
	행잉슬리브 (Hanging Sleeve)			퍼 (Fur)	
	앙가장 (engageants)			단추 (Button)	
	턴백커프스 (Turned back cuffs)			보석장식 (Jewellery)	
	캐논장식 (Canons)				
	갈랑장식 (Galant)				

### III. 현대 패션에 응용된 근세 시대 장식

#### 1. 디테일

##### 1) 파틀렛(Partlet)

파틀렛을 응용한 경우로서, <그림 2>에서는 레이스가 살짝 올라와 귀여운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림 3>은 골티에 작품으로 근세시대 파틀렛을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그림 4>는 가슴이 거의 노출이 될 정도로 레이스를 덧대어 파틀렛 느낌을 주고 있다.

##### 2) 크라바트(Cravat)

크라바트를 응용한 경우로서, <그림 5>골티에의

작품으로 17세기의 남성복인 쥐스또꼬르를 응용한 작품이다. <그림 6>는 18세기를 그대로 재현한 작품으로 크라바트에 브러치로 장식을 더했으며, <그림 7>은 샤넬 작품으로 크라바트를 스카프처럼 변형시켜 리본처럼 묶어서 보여주고 있다.

##### 3) 러프칼라(Ruff Collar)

러프칼라를 응용한 경우로서, <그림 8>은 레이스를 소재로 둥근 러프칼라 받침대를 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은 크리스찬 디오르 작품으로 과장된 러프칼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는 러프칼라의 형태를 차용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림 11>은 샤넬 작품으로 스케일을 작게 함으로써 목에 둥그란 형태의 러프가 귀여운 느낌까지 준다. 이렇

듯 러프칼라는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여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중요한 아이템으로 작용하고 있다.

4) 폴링밴드칼라(Falling band collar)

폴링밴드 칼라를 응용한 경우로, <그림 13>과 <그림 14>는 어깨를 덮을 만큼 칼라가 크고 길게

내려온 다소 과장된 폴링밴드 칼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폴링밴드 칼라는 차분한 느낌과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주로 스케일이 큰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윙슬리브(Wing Sleeve)

<그림 16>의 윙슬리브는 기하학적인 실루엣과 함



<그림 1> Jane Ashford, Art of dress, p. 103



<그림 2> Carven 作, 2000s/s, 「Mode et Mode」



<그림 3> Jean Paul Gautier 作, 2002s/s, 「Mode et Mode」



<그림 4> Scherrer 作, 2005s/s, 「Mode et Mode」



<그림 5>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p.192



<그림 6> Jean Paul Gautier 作, 2005 F/W, 「Mode et Mode」



<그림 7> Carven 作, 2005F/W, 「Mode et Mode」



<그림 8> Chanel 作, 2006s/s 「Mode et Mode」



<그림 9> Jane Ashford, Art of dress p.34



<그림 10> Christian Lacroix 作, 2001F/W, 「Mode et Mode」



<그림 11> Christian Dior 作, 「Mode et Mode」



<그림 12> Jean Paul Gautier 作, 「Mode et Mode」



<그림 13> Chanel 作, 「Mode et Mode」

께 미래지향적인 느낌까지 자아내고 있으며, <그림 17>는 크리스찬 디오르의 작품으로 크고 넓은 원슬리브와 함께 스커트의 형태에서 반복됨으로써 유사형태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행잉 슬리브를 응용한 경우로, <그림 19>는 보통 슬리브형태를 슬릿을 주어 마치 소매가 달린 것처럼 보인다. <그림 20>은 소매 길이가 과도하게 길어 소매가 달린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그림 21>은 고티에의 작품으로 근세시대 행잉 슬리브를 재현하고 있다. 이렇듯 행잉 슬리브는 과도한 형태로 표

6) 행잉슬리브 (Hang-ing Sleeve)



<그림 14> - 20000 years of fashion. p.267



<그림 15> Hanae Mori작, 2002s/s, 「Mode et Mode」



<그림 16> Givenchy작, 2004s/s, 「Mode et Mode」



<그림 17> 원슬리브, 20000 years of fashion. p. 225



<그림 18> Feraud작, 2002s/s, 「Mode et Mode」



<그림 19> Christian Dior작, 2002s/s, 「Mode et Mode」



<그림 20> 20000 years of fashion, p.220



<그림 21> Jean Paul Gautier작, 2001F/W, 「Mode et Mode」



<그림 22> Christian Dior작, 2002s/s, 「Mode et Mode」



<그림 23> Jean Paul Gautier작, 2006s/s, 「Mode et Mode」



현되거나, 마치 팔이 하나 더 달려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트롱브리유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다.

7) 앙가장(engageants)

<그림23>은 크리스찬 라크루와의 작품으로 한쪽 손목에 재현되었다. <그림 24>는 크리스찬 디오르의 작품으로 목과 손목을 같은 형태로 하여 과장된 앙가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25>은 팔 전체에 3겹 앙가장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26>은 샤넬의 작품으로 손목에 풍성한 앙가장으로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앙가장은 현대에는 팔 뿐만 아니라 목, 스커트단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아이템이다 특히 트랜스페어런스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적 분위기와 함께 화려함도 연출하고 있다.

8) 턱백커프스(Turned back cuffs)

턱백 커프스를 응용한 경우로, 주로 커프스는 라펠과 유사소재를 사용하거나, 형태, 색채를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다음 사진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그림 28>는 칼라 라펠과 같은 원단으로 된 폭이 넓은 턱백 커프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9>은 손목에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위로 접어올린 3단 턱백 커프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0>는 손목을 접어 올려서 턱백 커프스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9) 캐논장식(Canons)

캐논장식을 응용한 경우로, <그림32, 33, 34>샤넬 작품으로 근세시대의 남자 바지에 장식되었던 것을 여성 드레에 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여성



<그림 24>  
앙가장 소매, 20000  
years of fashion  
p. 297



<그림 25>  
Christian Lacroix작,  
2003s/s, 「Mode  
et Mode」



<그림 26>  
Christian Dior작,  
2003s/s 「Mode  
et Mode」



<그림 27>  
Valentino작,  
2004F/W 「Mode  
et Mode」



<그림 28>  
Chanel작,  
2006s/s 「Mode  
et Mode」



<그림 29>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p.223



<그림 30> Jean Paul  
Gautier작 , 2001F/W,  
「Mode et Mode」



<그림 31> Pierre  
Balmain작 2002s/s,  
「Mode et Mode」



<그림 32> Christian  
Lacroix작 2003s/s,  
「Mode et Mode」



복의 햄라인 쪽에 장식을 하여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있다.

10) 갈랑장식(Galant)

<그림 36>은 스커트에 응용이 되었고, <그림 37>는 짧은 드레스에 갈랑장식이 스커트 단에 보여지고 있다. <그림 38>은 사빌 작품으로 손에 들고 있는 외투의 외관이 갈랑띠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갈랑은 원래 17세기 바로크시대 남성복에 사용되었던 장식이지만 현대패션에서는 여성복에 주로 응용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으며, 특히 <그림 36, 37>는 갈랑과 프린징 사이의 장식으로도 볼 수 있다.

11) 리본장식 (Ribbon· Bow)

리본은 최근 여성복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으로 주로 여성미와 귀여움을 나타내는 장식이다. <그림 40>은 가죽 리본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1>은 가슴에 큰 리본 장식이 특징적이다. <그림 42>은 허리에 큰 리본이 여성스러움을 더해주며, <그림 43>의 가슴에 리본띠 장식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을 준다.

2. 장식적 구성

1) 프린징(Fringe)

요지 야마모토의 작품 <그림 45>는 의복자체 소



<그림 33>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p.196



<그림 34> Chanel작, 2005F/W, 「Mode et Mode」



<그림 35> Chanel작, 2005s/s, 「Mode et Mode」



<그림 36> Chanel작, 2005s/s, 「Mode et Mode」



<그림 37> 20000 years of fashion, p.259



<그림 38> Givenchy작, 2000s/s, 「Mode et Mode」



<그림 39> Versace작, 2004 s/s,, 「Mode et Mode」



<그림 40> Chane작, 2005F/W, 「Mode et Mode」

재의 울을 인위적으로 푼 프린징으로, 히피적이며 해체주의적인 요소한 강한 느낌이다. <그림 46>은 코트의 단부분에 조금 나타나 여성스러운 라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47>은 샤넬 작품으로 팔과, 스커트 단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2) 술장식(Tassel)

<그림 49>는 이브생로랑의 작품으로 스커트 전체가 술로 되어있다. <그림 50>는 스커트 절반을 술장식으로 균일하게 부착을 했으며, <그림 51>은 고티에의 작품으로 술 장식을 벨트처럼 허리에 착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술장식은 캣워크(cat walk)시 흔들리는 울동감으로 인해 리듬감을 연출해 낼수 있으며 키네틱 아트를 표현해내는 방법

으로 보여진다.

3. 표면장식

1) 슬래쉬(Slash)

슬래쉬는 16, 17세기에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던 표면장식으로 <그림 53>자켓 가슴부분에 슬래쉬를 넣어 에로틱함을 연출하고 있으며, <그림 54>은 드레스에 슬래쉬 장식은 활동적이고 섹시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5>는 슬래쉬 장식을 이용한 코르셋을 표현하여 여성미를 나타내고 있다.

2) 자수(embroidery)

자수가 응용된 경우로, <그림 57>는 자켓 전체에 수가 놓아져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그림 41> 20000 years of fashion, 「Mode et Mode」. p.297



<그림 42> Givenchy작, 2002F/W, 「Mode et Mode」



<그림 43> Christian Lacroix작, 2003s/s, 「Mode et Mode」



<그림 44> Valentino작, 2005F/W, 「Mode et Mode」



<그림 45> Chanel작, 2006s/s, 「Mode et Mode」



<그림 46> 20000 years of fashion. p.328



<그림 47> Yohji Yamamoto 2003s/s, 「Mode et Mode」



<그림 48> Chanel, 2006s/s 「Mode et Mode」



<그림 49>Jean Paul Gautier작 2005F/W 「Mode et Mode」

58, 59>은 크리스찬 디오르의 작품으로 서양의 실루엣과 동양의 자수 장식이 결합되어 동서양이 믹스 &매치된 작품이다. 이는 우아한 여성적인 실루엣과 동양의 자수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해주고 있는 것이다.

3) 퀼팅(quilting)

<그림 61>은 퀼팅이 크게 되어 과감함과 러프함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며, <그림 62>은 디테일하게 퀼팅이 된 롱 자켓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0> Yves Saint Laurent작 2000s/s 「Mode et Mode」



<그림 51> Jean Paul Gautier작 2006s/s 「Mode et Mode」



<그림 52> Christian Dior작 2005F/W 「Mode et Mode」



<그림 53>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p.165



<그림 54> Jean Paul Gautier작 2002s/s 「Mode et Mode」



<그림 55> Versace 2004s/s 「Mode et Mode」



<그림 56> Jean paul Gautier 「Mode et Mode」



<그림 57> Jane Ashelford, 「Art of dress」, p. 42



<그림 58> Jean paul Gautier작, 2000F/W, 「Mode et Mode」



<그림 59> Christian Dior작, 2005F/W, 「Mode et Mode」



<그림 60> Christian Dior작, 2005s/s, 「Mode et M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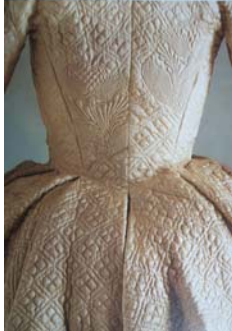


#### 4. 트리밍

##### 1) 브레이드(braid)

브레이드가 응용된 경우로, <그림 64>은 전체적

으로 브레이드가 장식된 자켓으로, <그림 65>은 목에서 단으로 이어지는 금색 브레이드 장식이 화려하게 보여진다. <그림 66>는 목과 손목, 허리단에 브레이드가 심플하게 장식 되어져 있다. 이러한 브레



<그림 61> Jane Ashelford  
Art of dress, p.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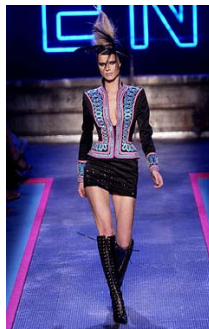
<그림 62> Christian Dior작  
2001F/W, 「Mode et Mode」



<그림 63> Christian Lacroix작  
2001F/W, 「Mode et Mode」



<그림 64>  
「20000 years of fashion」 p.224



<그림 65> Givenchy작  
, 2002F/W,  
「Mode et Mode」



<그림 66> Pierre  
Balmain작, 2002s/s,  
「Mode et Mode」



<그림 67> Chane작,  
2006s/s,  
「Mode et Mode」



<그림 68> Jane  
Ashelford 「Art of  
dress」, p.134



<그림 69> Christian  
Lacroix작, 2001F/W  
「Mode et Mode」



<그림 70> Valentino작,  
2004F/W,  
「Mode et Mode」



<그림 71> Christian  
Dior작, 2004F/W,  
「Mode et Mode」

이드 장식은 고급스러움과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남성복 장식으로 대표될 수 있다.

## 2) 퍼(F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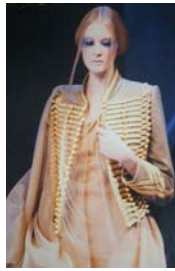
퍼는 과거시대 부를 대표하는 장식으로 여겨 왔었다. <그림 66>은 작은 분량의 모피가 행 라인, 커프스, 넥에 장식되어 단정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68>은 스커트 전체가 퍼로 되어 있으며, <그림 69>는 전체적으로 단이 퍼 장식이 되어있다. <그림 70>는 크리스찬 디오르의 작품으로 전반적으로 퍼 장식과 함께 근세 시대를 재현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도 스커트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장식으로 활용되어 부를 대표하는 장식법으로 손꼽히고 있다.

## 3) 단추(Button)

<그림 72>은 부라덴 브라크를 응용한 자켓을 보여주고 있는 지방시의 작품이다. <그림 73>은 크리스찬 디오르의 작품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단추가 부착되어져 장식을 더해주고 있으며, <그림 74>은 단추가 표면에 부착이 되어 보석장식처럼 보여진다. <그림 75>의 목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단추장식은 절제되면서 심플한 느낌을 더해준다. 이렇듯 단추는 본래의 기능적인 역할 보다는 장식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근세시대의 단추장식은 부라덴 브라크처럼 브레이드를 이용한 단추나 촘촘히 박힌 단추장식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장식법은 현대에 와서도 액세서리의 기능을 하면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 72> Jean paul Gautier작, 2003s/s, 「Mode et Mode」



<그림 73> Givenchy작, 2000s/s, 「Mode et Mode」



<그림 74> Christian Dior작, 2001F/W, 「Mode et Mode」



<그림 75> 신상옥저, 서양복식사, 수학사, p.227



<그림 76> Carven작, 2006s/s, 「Mode et M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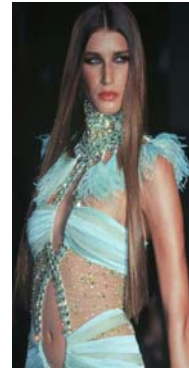
<그림 78> Valentino작, 2003s/s, 「Mode et Mode」



<그림 77> The Jane Ashelford, 「Art of dress」, p. 34



<그림 80> Armani작, 2006s/s, 「Mode et Mode」



<그림 79> Versace작, 2004s/s, 「Mode et Mode」

4) 보석장식(Jewellery)

보석은 근세시대에 진수, 에메랄드 등 화려한 보석 장식이 활용된 것을 바탕으로 현대에도 주로 여성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림 77>은 보석이 전체적으로 장식이 되어 우아하고 화려하게 보여진다. <그림 78>은 베르사체의 작품으로 목과 가슴, 배로 이어지는 보석장식이 특징적이며, <그림 79>는 전체적으로 보석장식이 되어있어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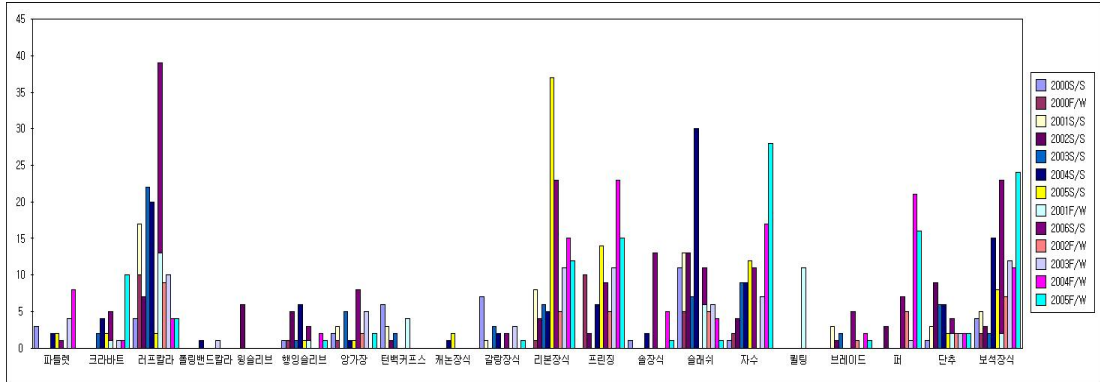
IV.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근세시대 장식의 경향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6S/S까지 파리 오트 쿠튀르 각종 컬렉션이 수록된 패션 잡지 「Mode et Mode」에 수록된 사진 총 5198의 사진 중, 근세시대 장식을 반영한 디자인 953장을 발췌하여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디테일을 응용한 장식의 경우는 405장(42.5%), 장식적 구성을 응용한 경우는 117장(12.3%), 표면 장식을 응용한 작품은 212

<표 2> 근세시대 장식의 경향 (2000s/s~ 2006s/s)

	디테일										장식적 구성		표면장식			트리밍				계		
	파들렛	크라바트	러프칼라	폴딩밴드칼라	영슬리브	행잉슬리브	양가장	턴백커프스	캐논장식	갈랑장식	리장	본식	프린장	술장식	슬래쉬	자수	퀼팅	브레이드	퍼		단추	보석장식
2000 S/S	3		4			1	2	6		7			1	11	1					1	4	41
2000 F/W			10			1	1				1	10		5	2						2	32
2001 S/S			7				2	3		1	7			8			3		3	3	3	37
2001 F/W		1	13			1		4						6		11			2	2	2	40
2002 S/S			7		6	5		1			4	2		13	4		1	3	9	3	3	58
2002 F/W			9				2				5	5		5			1	5	2	7	7	41
2003 S/S		2	22			1	5	2		3	6			7	9		2		6			65
2003 F/W	4	1	10	1			5			3	11	11		6	7			1	2	12	12	74
2004 S/S	2	4	20	1		6	1		1	2	5	6	2	30	9				6	15	15	110
2004 F/W	8	1	4			2					15	23	5	4	17		2	21	2	11	11	115
2005 S/S	2	2	2			1	1		2		37	14			12				2	8	8	83
2005 F/W		10	4			1	2			1	12	15	1	1	28		1	16	2	24	24	118
2006 S/S	1	4	26			2	8			2	23	9	13	5	11		5	7	2	21	21	139
계	20	25	138	2	6	21	29	16	3	19	126	95	22	101	100	11	15	53	39	112	953	
(%)	2.1	2.6	14.5	0.2	0.6	2.2	3.0	1.7	0.3	2.0	13.2	10	2.3	10.6	10.5	1.2	1.6	5.6	4.1	11.8	100	





장(22.2%), 트리밍을 응용한 경우는 219장(23%)으로 이중 디테일을 응용한 장식 디자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응용한 작품 405장에서는 러프칼라가 138장(34.1%), 장식적 구성 117장에서는 프린징이 95장(81%), 표면장식 212장에서는 슬래쉬101장(47.6%), 트리밍 응용219장 중 보석장식이 112장(5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의복장식을 반영한 디자인 953장 중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응용된 장식은 디테일에서 러프칼라가 138장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러프칼라 바람이 불어 올 2006 s/s에서도 여성복 블라우스에 각종 러프칼라의 바람이 불었으며, 주로 파스텔 계열의 색상과 함께 화려하게 응용되고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2000년부터 2006s/s까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근세시대 장식의 경향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세시대에 나타난 의복 장식의 종류를 고찰하고 현대패션에 어떻게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조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의복 장식의 종류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으며, 현대패션에 응용된 장식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 패션에 응용된 근세 시대 장식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S/S까지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근세 장식이 재현, 또는 변형되어 의복을 보완해주고, 강조점이 되도록 장식됨을 알 수 있었다.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근세시대 장식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디테일을 응용한 장식의 경우는 405장(42.5%), 장식적 구성을 응용한 경우는 117장(12.3%), 표면 장식을 응용한 작품은 212장(22.2%), 트리밍을 응용한 경우는 219장(23%)으로 이중 디테일을 응용한 장식디자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디테일을 응용한 작품 405장에서는 러프칼라가 138장(34.1%), 장식적 구성 117장에서는 프린징이 95장(81%), 표면장식 212장에서는 슬래쉬101장(47.6%), 트리밍 응용219장 중 보석장식이 112장(5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의복장식을 반영한 디자인 953작품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응용된 장식은 디테일에서 러프칼라가 138장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디테일 중 러프칼라는 최근 가장 유행했던 의복장식으로 블라우스 등에 많이 활용되어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아이템이었다. 또한 장식적 구성의 프린징이나 표면장식 중 슬래쉬는 최근 트렌드인 해체주의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근세 장식이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특히 의복장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이템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는 앞으로의 의복 디자인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다른 시대 장식과 겹치는 장식종류에 있어서 근세시대로 계수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대 패션에 있어 많은 디자이너들이 과거 의복 장식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얻어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근세의복 장식은 풍부한 디자인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현대패션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박은정, "레이스·프릴장식... '소녀풍' 미니스커트 인기"(2006.04.23) *마이데일리* 자료검색일 2008. 06. 25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17&aid=0000045232>
  - 2) 조정현(2002), "슬래쉬 기법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3) 이은영(2003), *복식디자인론*, 교문사, p.201-209.
  - 4) 이순홍(2003),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의상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1), p.24.
  - 5) *ibid.*, p.24
  - 6) Herbert Read(1997), *디자인론*, 정시화(역), 미진사, p.48-49.
  - 7) Horn. M. J.(1995), *의복:제2의 피부*, 이화연 외(역), 까치, p.37.
  - 8) 이순홍, *op.cit.*, p.22.
  - 9) *ibid.*, p.23
  - 10) 이은영, *op.cit.*, p.200.
  - 11) *ibid.*, pp.201-202.
  - 12) 이은영, *op.cit.*, p.203-204.
  - 13) 이은영, *op.cit.* pp.205-206.
  - 14) 이은영, *op.cit.* pp.206-209.
  - 15) Blanche Payne (1997), *복식의 역사-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이종안 외(역), 까치, p.78.
  - 16) 신상옥(2001), *서양복식사*, 수학사, p.191
  - 17) Katherine Morris Lester · Bess Viola Oerke (1940), *Accessories of Dress*(Illinois: Bennett), Dover Publications, pp. 194-198.
  - 18) 신상옥, *op.cit.*, p.189.
  - 19) 이순홍, *op.cit.*, p.29.
  - 20) 신상옥, *op.cit.*, p.205.
  - 21) 이순홍, *op.cit.*, p.29.
  - 22) 신상옥, *op.cit.* p.197.
  - 23) Blanche Payne, *op.cit.*, p.328.
  - 24) Avril Hart · Susan North(1998), *Historical Fashion in Detail*, London : V & A Publication, p.202.
  - 25) 조정현, *op.cit.*, p.3.
  - 26) 신상옥, *op.cit.*, p.158.
  - 27) Avril Hart · Susan North(1998), *Historical Fashion in Detail*, London : V & A Publication, p.26.
  - 28) Katherine Morris Lester · Bess Viola Oerke (1940), *Accessories of Dress*, Illinois:Bennett, Dover Publications, p562-563
  - 29) 유주화(2000), *패션의 변천사 1*, 라사라, p.171
  - 30) Katherine Morris Lester · Bess Viola Oerke, *op.cit.*, p.474-476
- 접수일(2008년 10월 6일)  
수정일(1차 : 2008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2008년 11월 24일)